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1.24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45.90원(+9.70원)

KOSPI

4,708.54(-161.42, -3.31%)

KOSDAQ

635.45(-10.23, -1.58%)

국고채 10년 금리

3.827(-0.030%p)

Special Report

인터넷/게임	바텀 피싱 사기 [이준호]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AI와 긴축 딜레마 [박승진]
New K-ETF	글로벌 AI병목 인프라 액티브 [박승진]
New K-ETF	글로벌 LLM 액티브 [박승진]
DIN(Doo It Now)	[2027년 전망] 시대의 주식 [김두언]
주간 하나채권	[11월 4주] 듀레이션 '확대'로 상향 [박준우, 허성우]

기업분석

SK텔레콤	12월 전략 - 7만원 매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김홍식]
KT	12월 전략 – 단기 호재는 없지만 가격은 너무 쌉니다 [김홍식]
LG유플러스	12월 전략 – 내년엔 2만원까지는 오를 것입니다 [김홍식]
HL홀딩스	지분법 쇼크는 비현금성, 배당수익률은 7% [송선재]
채비	IPO 주관사 업데이트: 급속충전 운영, 수익성 개선 [권태우]

산업분석 Monthly&Weekly

통신	통신서비스 12월 투자 전략 [김홍식]
건설	트럼프 발언에 의한 하락은 매수 기회 [김승준, 하민호]

단기투자유망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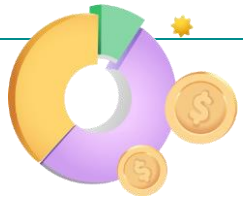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 카카오뱅크,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호텔신라, 해성디에스, 진에어, 디케이티, LIG아큐버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11.23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AI와 긴축의 딜레마

PCE, 연말 소비 통한 투자 기회 모색: VOO·퀄리티 중심 Core 유지, 금리·신용여건 확인 후 성장주 선별 대응, RTH/XLP로 소비 포지션 접근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주식형 ETF의 대규모 자금 유입 기조가 이어지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세도 지속되었다. 북미 주식형 ETF에는 +532.8억달러가,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에는 +139.1억달러가 순유입되며 총 +734.5억달러가 글로벌 주식형 ETF 시장에 유입되었다.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선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신흥 남미 지역에서만 자금이 유출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이어졌으나 강도는 크게 약해졌다. 북미 채권형 ETF 시장의 유입액이 +58.4억달러에 그친 가운데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62.4억달러가 빠져나가면서 2주만에 순유출 전환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에서는 혁신·성장주 액티브 ETF와 S&P500 추종 ETF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ARKK(혁신기업)에 +81.7억달러가, ARKW(차세대 기술주)에도 +23.9억달러가 유입되었다. TCAF(미국 대형주 액티브)와 CNEQ(집중투자 액티브)는 각각 +38.4억달러와 +29.0억달러, IVV/VOO/SPYM(S&P500)은 총 +65.0억달러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반도체에서는 SOXL(반도체 3배)과 SMH(반도체)에 각각 +26.8억달러와 +15.2억달러가 유입되었으며, NUDG(배당성장), CGDV(배당가치 액티브), VTI(미국 전체 주식)도 순유입 종목 상위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 반면 QQQ(NASDAQ100)와 SOXX(반도체)에서는 각각 -38.5억달러와 -38.3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XLE(에너지), IDEF(방산/산업재/기술), SPY(S&P500), KRE(미국지역은행), EFG(북미 제외 선진국 성장주)도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DRAM(메모리 반도체)과 SOXS(반도체 3배 인버스)에서는 각각 -6.8억달러와 -6.5억달러가 유출되었다. QQQ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ARKK와 ARKW에는 매수세가 유입됐고, 반도체에서도 SOXX·DRAM과 SOXL·SMH의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기술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기보다 판단에 따라 일부 테마와 종목군에 자금이 집중된 흐름으로 판단된다.

- 채권형 ETF 종목군에서는 SGOV/BIL(초단기국채)에 총 +29.9억달러, TLT(장기국채)에 +11.2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LQDH(금리헤지 IG회사채), VCSH/LQD(IG회사채), AGG(미국 종합채권), PYLD(멀티섹터 채권 액티브), TAFM(지방채)에도 자금이 들어왔다. 반면 HYG/USHY/SPHY(HY회사채)에서는 총 -14.8억달러가 순유출되었으며, CARY(멀티섹터 채권 액티브), GOVT/IEF(미국 국채), MUB(지방채), CWB(전환사채), MBS(주택저당증권), SRLN(시니어론)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다. 원자재 ETF에서는 GLD/IAU(금 현물)에서 총 -8.4억달러, SLV(은 현물)에서 -1.5억달러가 유출되었다. 가상자산 ETF는 IBIT/FBTC/GBTC(비트코인 현물)에서 총 -6.2억달러, BITO(비트코인 선물)에서 -0.5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이번 주는 미국 PCE 물가와 GDP, AI 서버·소프트웨어와 소매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최근 급락 이후 시장의 안정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다. 다만 지난주 NVIDIA의 실적 호조와 Anthropic 상장 이벤트도 AI 밸류체인 전반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만큼,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즉각 연결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당분간 반등과 추가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금조달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들의 상대 우위를 예상한다.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리 하락을 넘어 실질적인 금리 안정과 유동성 공급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투자 사이클이 약화되어야 하는 자가당착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성장주 중심 위성 포지션 확대 전략의 전제조건으로는 물가 부담 완화와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인 26일에 휴장하고 27일에는 조기 폐장하는 만큼,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금주 예정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이벤트는 25일 발표되는 10월 PCE 물가와 3분기 GDP 수정치 발표 일정이 되겠다. 현재 10월 Headline PCE 물가는 전년대비 +3.6%에서 +3.8%, Core PCE 물가는 +3.1%에서 +3.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Headline +0.3%, Core +0.3%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대비 수치의 상승과 최근 물가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상에 부합하더라도 물가 부담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근원 물가가 예상을 웃돈다면 추가 긴축 경계가 강화될 수 있다.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고 실질소비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낙폭이 컸던 성장주의 단기 반등 시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3.4%에서 +3.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분기의 성장률 수정 자체보다 소비와 기업투자의 구성이 향후 성장 전망에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 11월 PMI 보고서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베이지북에서는 경기둔화 속도와 가격 전가 양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S&P PMI 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수요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가격 압력도 함께 낮아진다면 시장에 우호적이겠으나, 신규주문 약화와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면 기업들의 마진과 가계 구매력이 함께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된다. 개인 소비지출의 경우 명목 증가율보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의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11/28~)에 진입하는 만큼, 주중 발언 내용과 베이지북에서 확인되는 경제 판단이 정책 해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면, 주가 하락만으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성장과 증시 호황은 수요 확대보다 투자 증가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 NVIDIA는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대비 110% 증가했고,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팅 매출을 제외한 4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나 주가는 하락했다. 중국향 H200 출하 중단으로 중국 매출 회복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SEC의 회계 관련 조사 보도도 주가에 부담을 더했다. 조사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신규 금융 지원을 선별적으로 집행할 경우 지원 의존도가 높은 고객의 GPU 발주가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Anthropic도 상장 직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토큰당 실질 단가가 하락했는데 사용량 점유율까지 오히려 낮아져, 가격 인하가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 성장과 마진을 함께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NVIDIA의 실적 호조와 Anthropic의 공모 흥행에도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은 만큼, AI 인프라는 고객 발주 지속성, 모델 기업은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이 확인되기까지 단기 반등과 추세 회복을 구분해야 하겠다.

- 이번 주 실적은 Dell, Workday, Best Buy, Dollar Tree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ell은 AI 서버 수주가 실제 출하와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Workday는 AI 기능 도입이 유료 계약 확대와 매출 전망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이다. 서버 수주가 견조하더라도 출하와 마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 인프라 전반의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소비에서는 Best Buy의 가전·IT 제품 판매와 Dollar Tree의 저가 소비 흐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Best Buy의 판매량이 부진한 가운데 Dollar Tree의 방문객만 늘어난다면, 소비 전반의 회복보다 저가 채널로의 이동에 무게가 실린다. 블랙 프라이데이(27일)를 앞두고 두 기업의 연말 가이던스와 판촉에 따른 마진 부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TF 포트폴리오는 VOO 중심의 Core와 QUAL·SPHQ·JQUA 등 퀄리티 전략을 유지하고, QQQ나 MGK를 통한 대형 성장주 익스포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AI에서는 기존 비즈니스의 현금흐름으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MAGS 등)를 우선하되, 적극적인 비중 확대는 장기금리와 신용여건이 안정되고 이익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유보하는 편이 적절하겠다. 유사한 맥락에서 SOXX·SMH는 출하 전망과 수출 규제 불확실성의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IGV·CIBR/BUG와 GRID·POWR·PAVE는 각각 계약과 수주가 유지되는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소비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는지, 중소형 업체의 판매량과 마진 개선으로 확산되는지가 관건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는 RTH의 포지션을 유지하되 Amazon 중복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 XRT는 금리안정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이익 전망 개선 기대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연말 소비가 한정되고 원가 및 판촉 부담에도 이익 전망이 유지된다면 XLP로 성장주 집중도를 낮출 수 있다. 대기자금은 USFR·TFLO 등의 종목들을 활용하고, 현금흐름 확보에는 NASDAQ100 편입이 동반되는 QPIQ와 배당주 중심의 DIVO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커버드콜의 경우 급반등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장기금리가 하락해도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면 성장주 노출은 유보하고, 반등 과정에서 과도한 집중을 줄이며 퀄리티 전략을 재배분하는 방향성이 적절하겠다.

2026년 11월 2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글로벌 AI병목 인프라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1/24)

- PLUS 글로벌 AI병목 인프라 액티브

PLUS 글로벌 AI병목 인프라 액티브: 미국과 유럽 증시에 상장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들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이다. ①발전·상시전원, ②송배전·전력망, ③냉각·열관리, ④네트워크·광통신, ⑤무정전전원·에너지저장·백업전원의 다섯가지 영역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센터 증설 과정에서 장비나 설비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에 주목하는 ETF 종목이다. 상관계수 0.7의 유지 조건이 적용되는 액티브 ETF 종목이 되겠다.

AI 데이터센터는 서버 설치를 마치더라도 전력망 연결이나 변압기 납품이 늦어지면 가동을 시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송배전 설비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스터빈·연료전지 수요도 커질 수 있다. 가동 이후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비상발전기가 정전 시에도 서버에 전력을 공급한다. 한편 서버 랙당 GPU 수가 늘어나면 열이 집중돼 칩의 열을 직접 제거하는 수랭식 냉각의 필요성이 커진다. 여러 랙의 GPU가 연산을 나눠 처리할 때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전체 처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속 네트워크 스위치와 광트랜시버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비교지수인 'DeepSearch 글로벌 AI 병목 인프라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럽 주요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일간 거래대금의 중앙값이 2,000만달러 이상인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이어 상기 다섯 개의 주요 인프라 영역에 장비·부품을 공급하거나 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별한다.

비교지수의 종목 선정에는 기업의 공급능력 대비 수요 강도를 평가하는 '병목 스코어(BNS)' 방식을 활용한다. 매출총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지, 매출이 유형자산보다 빠르게 늘어나는지, 고객 선지급을 나타내는 계약부채가 증가하는지, 수주 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 규모가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살펴본다. 네 가지 기준의 상대 순위를 각각 25%씩 반영해 병목 스코어를 산출한다. 이후 병목 스코어와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을 각각 정규화한 뒤 50%씩 반영하여 최종 점수 상위 30개 종목을 선정한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최종 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0.5%~8.0% 범위로 제한한다. 더불어 특정 인프라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영역별 합산 비중도 50%의 상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장일(11/24) 기준의 비교지수에는 광통신 부품 기업인 Lumentum, 현장 발전용 연료전지의 Bloom Energy, 네트워크 장비 Arista Networks, 발전설비 기업 GE Vernova, 송배전망 시공 기업 Quanta Services, 냉각·열관리 기업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교지수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1월/4월/7월/10월)에 걸쳐 진행한다. 연 0.63%의 총보수가 적용되는 글로벌 주식형 액티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PLUS 글로벌 AI병목 인프라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PLUS 글로벌AI병목인프라액티브
상장일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비교지수	DeepSearch 글로벌 AI 병목 인프라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63%
구성종목 수	30종목
비중결정방식	- 종목별 비중: 선정점수 비례 산출, 개별 종목 0.5%~8.0% 범위 조정 - 병목 영역 50% 초과 시, 초과 영역 최하위 종목을 타 영역 최상위 종목으로 교체
정기변경	연 4회 (1, 4, 7, 10월)

자료: KRX,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2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글로벌 LLM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1/24)

- TIGER 글로벌 LLM 액티브

TIGER 글로벌 LLM 액티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이다. 미국, 중국, 홍콩, 한국 등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모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API 이용료, 기업용 플랫폼 및 소비자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자체 모델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AI 전문기업과 기존 제품·서비스에 자체 모델을 적용하는 기술기업에 함께 투자하는 구조이다.

비교지수인 'Mirae Asset Global LLM Index'는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에 상장된 LLM 테마 관련 기업들을 투자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신규 편입 종목은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00만달러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구성종목의 경우 시가총액 8억달러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800만달러 이상의 기준 충족시 편입 자격을 유지한다.

비교지수는 자체 LLM의 상용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다. 자체 모델의 라이선스와 API 이용료, 구독료, 기업 고객을 위한 모델 맞춤화·호스팅 등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기업은 'Core LLM'으로 분류한다. 자체 모델을 상용화하고 있으나 관련 매출 비중이 50% 미만인 기업은 'Enabled LLM'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외부 기업의 모델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매출은 자체 모델의 상용화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Core LLM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최대 20개까지 비교지수에 우선 편입한다. Core LLM 기업이 20개 미만이면 Enabled LLM 기업을 시가총액 순으로 추가한다. 두 그룹을 합쳐도 적격 종목이 20개에 미달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모두 편입하며, 10개 미만이면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각각 10%씩 완화해 최소 10개 종목을 확보한다. 비교지수는 현재 약 20개 가량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종목들의 편입 비중은 그룹별 비중을 먼저 정한 뒤 각 그룹 내에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배분한다. Core LLM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그룹의 합산 비중을 높이고, 나머지 비중을 Enabled LLM 그룹에 배정한다. 개별 종목의 최대 편입 비중은 Core LLM 15%, Enabled LLM 5%의 Cap Rate으로 제한한다. 다만 Core LLM 기업이 한 곳도 없고 5% 상한으로는 지수 비중의 100%를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Enabled LLM의 개별 종목 상한을 1%포인트씩 높여 조정한다.

비교지수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2월과 8월 마지막 영업일)에 걸쳐 진행한다. 실제 ETF 포트폴리오는 0.7의 상관계수 유지 조건 하에 유연한 대응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이 적용된다. 연 0.79%의 총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TIGER 글로벌 LLM 액티브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TIGER 글로벌LLM액티브
상장일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기초지수	Mirae Asset Global LLM Index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30%
구성종목 수	20종목
비중결정방식	- 테마별 비중: Core LLM 종목 수 기반 산출, 잔여 비중은 Enabled LLM에 배분 - 종목별 비중: 시가총액 가중, 개별 상한 Core 15%·Enabled 5% 제한
정기변경	연 2회 (매 2, 8월 마지막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24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2027년 전망] 시대의 주식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시대의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제안한다. AI가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주주환원이 투자 성과를 뒷받침하면서, 한국에서도 장기투자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수급 공백과 AI 투자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조정은 이어질 수 있다. AI는 과거 인프라 혁명들과 다른 차원의 혁명이다. 학습과 추론, 에이전트를 넘어 피지컬 AI까지의 여정은 너무나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AI 산업에 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별해 비중을 쌓아간다.

판이 바뀌고 있다. AI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제약을 완화할 기회다.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공급의 제약을 키우고 있다. AI와 피지컬 AI는 산업과 일상에서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 IMF의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 자료로 역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4%에서 2026년 2.14%, 2027년 2.20%로 높아지는 경로다. 이를 AI의 효과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I, 반도체 투자와 생산성 개선이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성장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면 한국 증시에서도 장기 보유를 통해 성과를 축적할 토대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

주주환원 확대는 한국 증시의 장기투자 매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변화다. 상법 개정과 주주중심 경영의 확산 속에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 늘고 있다. 2026년 1~3분기 상장사 자사주 소각액은 약 61.8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24.1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물량을 흡수하고, 소각은 재유통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춘다. 미국에서는 대형 IPO가 주식 공급을 늘리는 가운데 일부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가 주주환원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다만 이를 미국 시장 전체의 환원 축소로 일반화하기보다 기업별 자본 배분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신규 발행과 주식보상을 감안한 순주식 공급, 배당과 소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보상이 함께 커지는 구조에 재평가의 기회가 있다.

AI 생태계의 주도권 변화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기회를 다시 평가할 계기다. 엔비디아의 경영진 교체와 안보 관련 의혹의 독립조사는 투자 및 고객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사실을 기술 유출이나 엔비디아의 경쟁력 소멸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2027년에는 공급업체의 투자금이 고객의 연산 구매로 되돌아오는 순환금융의 지속성, 외부 조달 의존도가 높은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차환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 빅테크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이 확대되더라도 메모리는 다양한 연산 생태계에 필요한 중간재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하나증권은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도 한국 메모리의 수요 기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주식시황 RA 최욱 wookchoi@hanafn.com

반은 궁극적으로 피지컬 AI 상용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 수급 개선은 매도 규모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연초부터 11월 20일까지 외국인 순매도는 225조원에 이르렀지만, 유가증권시장 보유 비중은 38.2%였다. 많이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높은 보유 비중이 추가 매수를 막는 상한도 아니다. 고객예탁금 감소는 대기 자금 위축을 보여주지만 개인의 투자 여력이 소진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기금 역시 자산배분의 제약을 받는 만큼 장기 투자자금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이 중요하다. 당장의 자금 유입보다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기대되는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결제 접근성과 제도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027년 정부가 이러한 개선과 급격한 유동성 위축에 대한 대응을 진전시킨다면, 시장 신뢰와 외국인 자금 유입 여건이 함께 나아질 것으로 본다.

이란 전쟁의 봉합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앞당길 촉매다. 항행 안전과 원유 공급 회복을 수반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제유가의 위험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연준의 추가 긴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과 미국의 재정 및 국채 수급 부담이 남아 있어 장기금리의 하락 속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민주당의 양원 승리로 2027년 국내 입법 여건이 제약되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재량이 큰 외교에서 성과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1기와 같이 간헐적 충돌이 장기화되는 하방 시나리오와, 이란 및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가 함께 진전되는 상방 시나리오를 열어둔다. 투자 판단의 기준은 외교적 선언을 넘어 실제 에너지 공급과 물가 압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다. 2027년 국제유가는 하락을 예상한다.

투자의 중심은 AI 성장과 지속적인 이익,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갖춘 시대의 주식이다. 수출과 반도체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더라도 그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연결하고 그 성과를 주주와 나누는 기업에 집중한다. 이익 증가율의 둔화를 곧바로 주가 상승의 한계로 볼 필요도 없다. 2005년 한국 증시는 이익 모멘텀이 약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수급 개선을 통해 상승했다. 2027년에도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와 주주환원이 강화된다면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익과 환원이 유지되는 조정에서는 비중을 나누어 확대하고, 투자 근거가 훼손되면 보유 비중을 재검토한다. 2026년 역사에 기록될 큰 변동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통과의례이다. 2027년 한국형 장기 투자자가 승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대의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제안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2026년 11월 23일 | Global Macro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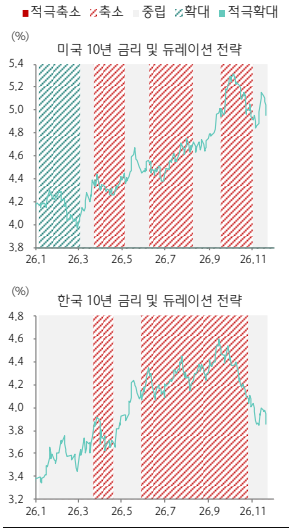
[11월 4주] 듀레이션 '확대'로 상향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		

주: 11/23 기준, ●: 직전 전망



- **S&P 500 전고점 대비 8% 이상 하락 → 투자/소비 심리 악영향 → 장기금리 하락 신호**
- **금융시장, 특히 금리는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해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선행**
-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도 한미 국채 듀레이션 '중립'에서 '확대'로 상향**

Weekly Viewpoint

지난주 AI 관련주 급락 등의 여파로 S&P 500 지수가 8.6% 하락했다. 미국과 한국 국채 10년 금리도 안전자산 수요로 각 24, 14bp 하락했다. 주목할 부분은 주가의 하락 폭이다. S&P 500은 목요일 기준 전고점 대비 8.2% 하락했고, 금요일에는 낙폭이 11.6%로 커졌다. '연간 전망: 고금리의 해결책은 고금리'에서 금리 하락의 신호로 제시한 것이 바로 S&P 500의 8% 하락이다. 1990년대와 최근 10년 모두 **S&P 500이 전고점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장기금리의 급등이 멈추거나 하락으로 전환됐다 [도표 1]**. 예외였던 2022년은 인상 사이클의 초입이었다. 반면 하나채권은 미국과 한국의 인상 사이클이 모두 내년 1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긴축 사이클의 끝이 보이는 지금은 **듀레이션을 확대할 시점**이다.

위험자산 조정은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AI 기업의 회사채 스프레드에 이어 HY 스프레드도 9월 이후 약 100bp 확대되며 360bp를 넘어섰다 [도표 2]. 주가와 크레딧의 동반 조정은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미 기업의 Capex 심리는 둔화되기 시작했고 [도표 6], 주가 하락은 미국 소비를 떠받치는 가계 순자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심리가 한풀 꺾인 만큼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실물과 시장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1월 1주] 시장과 경제의 괴리에 익숙해질 시기'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실물 지표만으로는 지금의 가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지 않은 채 주가가 급락했고,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이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해 실물경제나 통화정책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며, 당분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12월 인상 기대가 여전하나, 그 이후 경로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지난주 OIS 2y2y는 약 25bp 하락한 4.32%로 10년 금리와 함께 내려왔다 [도표 3]. 추가 인상 기대가 더 커지기보다 위험자산 약세의 영향이 확산되면 인상 종료 이후의 경로가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하고, 점도표로 추가 1회 인상을 시사할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 상향은 긴축을 이어갈 근거지만, 긴축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에 진입한다는 인식이 점차 커질 것이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11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12월 전략 – 7만원 매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11.23)	64,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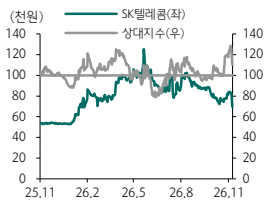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708.54
52주 최고/최저(원)	125,200/52,800
시가총액(십억원)	13,875.4
시가총액비중(%)	0.38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46.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1.6
외국인지분율(%)	35.15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11 인	30.60
국민연금공단	8.4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688.9	17,994.1
영업이익(십억원)	1,974.4	2,096.9
순이익(십억원)	1,421.6	1,478.4
EPS(원)	6,629	6,856
BPS(원)	68,142	71,55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940.6	17,099.2	17,751.9	18,212.3
영업이익	1,823.4	1,073.2	1,969.2	2,019.1
세전이익	1,761.8	722.3	1,870.0	1,732.1
순이익	1,250.2	408.4	1,367.3	1,277.3
EPS	5,810	1,901	6,366	5,947
증감율	16.27	(67.28)	234.88	(6.58)
PER	9.50	28.14	10.95	11.72
PBR	1.01	0.89	0.95	0.92
EV/EBITDA	3.73	4.41	3.79	3.30
ROE	10.83	3.33	9.59	8.03
BPS	54,898	60,299	73,300	75,676
DPS	3,540	1,660	3,54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TP 14만원/11월 Top Pick 제시, 배당 가치만 봐도 주가 현저히 싸다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12월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현 주가는 SKT 앤트로픽 보유 가치 및 데이터센터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수준이고, 2) 2027년 요금제 개편 논의 이후 이익/배당 성장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기대배당수익률 3% 수준까지 매수세 유입이 가능할 수 있어 높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며, 3) 2027년 비과세 배당 실시 예정이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시중 금리대비해서도 매력적인 상황이고, 4) 2027년 초 마지막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 이후 금리 하향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배당 수급이 양호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우려보단 2027년 국내 5G 요금제 개편 가능성에 주목해야

11월 중순 이후 SKT 주가가 급락하였다. 데이터센터 투자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데이터센터보다는 AI 기지국으로 전환을 통한 5G SA/6G 서비스 개시 및 신규 이동전화 요금제 출시가 2027년 이후 본격화될 것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올해 하반기 주파 하락으로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국책 AI 사업자, 앤트로픽 보유 가치 조차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SKT 주가는 이동전화요금제 업셀링 기대감이 커질 시 가장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도 2027년 5G 신규 주파수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신경 쓸 시점이 아니다.

양호한 현금 흐름은 장기 배당 성장 이끌 전망, 금리 하락 시 주가 크게 오를 것

2026년 12월 SKT 주가 전망은 밝다. 앤트로픽 보유 가치 상승,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 AI 기지국 투자 본격화 등 호재가 많은 데다가 최근 AI 관련주 폭락에 따른 동반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투자가들의 우려와 달리 SKT의 현금흐름은 양호할 전망이며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장기 DPS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센터 투자는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앤트로픽 보유 지분율이 0.25%로 낮아져 전략적 제휴 추진보다는 매각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SKT 기대배당수익률은 5% 수준이며, 세후로도 5%에 달한다. 비과세 배당이 실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027년 5G 요금제 개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상승할 것이며 시중 금리가 하락 반전한다면 보면 너무 높은 수준이다. 성장성 부각 시 2027년 기대배당수익률이 3%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70% 수준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커 보인다.

2026년 11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12월 전략 – 단기 호재는 없지만 가격은 너무 쌉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11.23)	43,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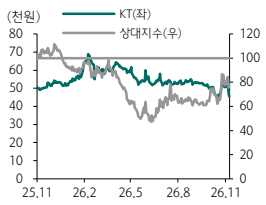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708.54
52주 최고/최저(원)	68,900/44,700
시가총액(십억원)	11,051.1
시가총액비중(%)	0.29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55.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0
외국인지분율(%)	48.82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차등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391.6	28,020.1
영업이익(십억원)	2,039.9	2,186.1
순이익(십억원)	1,505.2	1,617.8
EPS(원)	5,504	5,999
BPS(원)	78,666	82,18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431.2	28,244.2	27,680.6	29,465.4
영업이익	809.5	2,469.1	2,005.1	2,087.0
세전이익	584.7	2,418.1	2,033.8	2,132.4
순이익	470.3	1,731.0	1,373.2	1,520.0
EPS	1,850	6,869	5,449	6,031
증감율	(52.41)	271.30	(20.67)	10.68
PER	23.70	7.66	8.35	7.54
PBR	0.67	0.73	0.60	0.57
EV/EBITDA	4.31	3.63	3.76	3.58
ROE	2.85	10.22	7.60	8.03
BPS	65,177	71,886	76,069	79,846
DPS	2,000	2,400	2,400	2,4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6,000원으로 유지, 업황 회복 감안한 매수 추천

KT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76,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곧 2027년으로 투자가들의 시각이 이동할 것인데 올해와 달리 내년도 KT 실적 전망은 낙관적이며, 2) 2028년도엔 다시 DPS 증가가 예상되고, 3) 최근 주가 하락으로 기대배당수익률이 5%를 상회하고 있어 장기 이익/배당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수준이며, 4) 2027년 시중 금리 하향 안정화로 배당주 투자 매력도가 다시 높아질 전망이고, 5) 2027년도엔 5G 신규 주파수 할당과 더불어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통신서비스 업황 회복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엔 본사/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매출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주가 오를 것

KT 2026년 실적은 당초 예상대로 부진할 전망이다. 연결로는 부동산 분양 수익 감소, 본사로 보면 서비스매출액 성장 둔화, 제반 비용의 증가가 실적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 영향으로 올해 배당금 정체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2027년도엔 본사는 물론 연결 영업이익도 증가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매출액 증가 폭이 확대되겠지만 영업비용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양 수익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본사 이익 증가로 인한 연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요금제 개편으로 이동전화 ARPU가 상승한다고 해도 감가상각비가 서서히 증가하는 가운데 마케팅비용 역시 향후 3년간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DPS 상승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DPS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성장 기대감이 배당 증가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KT 주가가 오를 것이란 판단이다.

단기 호재 부재한 것은 맞지만 이 가격에선 매수가 정답이다

KT는 여전히 경쟁사대비 상대적으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배당금 정체 가능성이 높고 2,5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이 내년에도 지속되겠지만 외국인 한도 문제로 실제 소각이 어려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매입분의 특별 배당금 전환 추진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배당금이 한번 높아지면 내리기 어려운 통신사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KT 주가를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DPS 성장 기대감이 낮다고 해도 기대배당수익률이 5.2%, PBR이 0.6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곧 2027년으로 해가 바뀌면 양호한 2027~202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8년도에는 DPS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것이며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45,000원 수준에서는 매수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2026년 11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G유플러스 (032640)

12월 전략 – 내년엔 2만원까지는 오를 것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
현재주가(11.23)	14,7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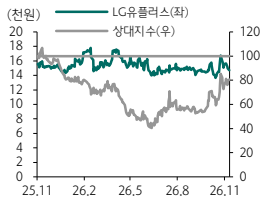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708.54
52주 최고/최저(원)	17,810/13,640
시가총액(십억원)	6,247.6
시가총액비중(%)	0.16
발행주식수(천주)	424,42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35.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1
외국인지분율(%)	39.31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 인	38.75
국민연금공단	6.3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437.7	15,823.8
영업이익(십억원)	1,150.2	1,234.3
순이익(십억원)	727.3	810.6
EPS(원)	1,726	1,930
BPS(원)	22,208	23,44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625.2	15,451.7	15,497.2	16,404.4
영업이익	863.1	892.1	1,142.8	1,247.9
세전이익	450.6	680.5	968.5	1,061.6
순이익	374.5	523.9	720.8	857.2
EPS	858	1,208	1,690	2,020
증감율	(39.83)	40.79	39.90	19.53
PER	12.04	12.19	8.86	7.41
PBR	0.52	0.71	0.69	0.65
EV/EBITDA	3.09	3.52	2.87	2.50
ROE	4.40	6.01	7.94	8.97
BPS	19,825	20,770	21,630	22,929
DPS	650	660	700	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의견 유지/TP 20,000원 유지, 현 가격대에선 매수가 정답

LGU+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를 2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2026년 높은 이익 성장에 이어 2027년에도 이익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2) 2027년엔 올해대비 14% 증가한 DPS 800원 지급이 예상되며, 3)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2027년 실적 기준 5%를 상회하는 기대배당수익률 매력적이고, 4) 2027년 연초 이후 시중 금리 하락 반전하고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통신주 수급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7년도에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장기 주가 전망 낙관적

LGU+는 2026년에 이어 2027년도에도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요금제 개편 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통신 3사 중 영업비용 흐름이 가장 양호하며 서비스매출액 흐름 역시 개선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6년도엔 이익 성장이 주주 환원 증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2027년도에는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감 상승과 더불어 DPS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자사주 정책 모호하지만 2027년엔 높은 DPS 성장 전망, 2만원까지 주가 상승할 것

2026년 LGU+ 주가는 극도의 부진 양상을 보였다. 2022년 이후 4년만의 유의미한 이익 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혹한 결과다. 가장 큰 이유는 2025년 실적 호전의 주가 선반영, 만족스럽지 못한 배당 및 주주 환원, 서비스매출액 성장률 둔화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7년도엔 투자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며 올해 연말부터 이를 주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인 14,000원 수준에서는 강한 주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이고 2027년엔 이익 성장 및 DPS 상승 기대감으로 20,000원까지 주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중/장 투자 관점에서의 매수 접근을 추천한다. 물론 LGU+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 자사주 매입/소각 지속 및 주주환원 규모 장기 증가 추세 지속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2026년 DPS가 700원으로 6% 증가하는 데 이어 2027년도엔 10% 이상의 DPS 성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2027년도 자사주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 성장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다. 현 주가 수준에서는 2027년 자사주 매입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2년 연속 유의미한 배당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026년 11월 24일 | 기업분석

HL홀딩스 (060980)

지분법 쇼크는 비현금성, 배당수익률은 7%

BUY (유지)

목표주가(12M)	40,000원(하향)
현재주가(11.23)	31,9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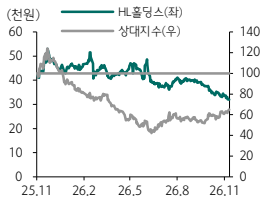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708.54
52주 최고/최저(원)	53,000/31,950
시가총액(십억원)	286.2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8,956.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5
외국인지분율(%)	10.96
주요주주 지분율(%)	
정몽원 외 6 인	38.34
브이아이피자산운용	10.5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73.0	1,445.0
영업이익(십억원)	98.0	89.0
순이익(십억원)	25.0	35.0
EPS(원)	2,652	3,908
BPS(원)	119,016	120,70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371.1	1,335.0	1,373.5	1,444.8
영업이익	90.4	88.7	96.6	103.3
세전이익	25.0	30.2	65.2	75.8
순이익	19.8	20.8	50.3	58.4
EPS	1,957	2,221	5,556	6,636
증감율	(60.14)	13.49	150.16	19.44
PER	17.50	20.19	5.79	4.84
PBR	0.31	0.38	0.26	0.25
EV/EBITDA	8.23	9.08	7.62	7.11
ROE	1.91	1.95	4.64	5.24
BPS	109,289	116,958	122,674	130,519
DPS	2,000	2,000	2,200	2,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추가 하방은 제한적, 반등의 열쇠는 HL만도

HL홀딩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자회사 지분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5.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한다. 3분기 실적은 지분법이익 부진으로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P/B 0.2배 중반의 낮은 Valuation과 7%의 기대 배당수익률, 자기주식 소각(2026년 108억원 완료, 2027년 100억원 예상)이 추가 하방을 제한할 것이다. HL홀딩스의 주가는 수년간 3만원~5만원의 박스권에서 움직여 왔다. 낮은 P/B Multiple과 높은 배당수익률이 하단을 지지했지만, 자회사들의 실적 변동성과 자체 사업의 저수익성이 상단을 제약했다. HL홀딩스의 기업가치는 자체 사업 영업가치 13%, HL만도 지분/로열티 가치 75%, HL D&I 지분/로열티 가치 11%, 기타 1%로 구성된다. 특히 HL만도의 지분/로열티 의존도가 크다. 2026년 1월 대비 HL만도의 시가총액이 50% 하락하는 동안 HL홀딩스의 시가총액도 31% 하락했다. HL만도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이어지겠지만, 고객사와의 가격 보전과 인도 법인의 성장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2027년에는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HL만도의 실적 회복과 로봇 모멘텀이 HL홀딩스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3Q26 Review: 영업이익률 -0.8% 기록

HL홀딩스의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2%/적전 (YoY) 변동한 3,239억원/-26억원(-0.8%, -6.8%p (YoY))을 기록했다. 자체 사업의 매출액은 7% (YoY) 증가했는데, 부품유통/물류 매출액이 각각 -4%/+16% (YoY) 변동했다. 반면 로열티/지분법 등 지주 매출액은 279억원에서 10억원으로 96% (YoY) 급감했다. 로열티 수익(112억원)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분법손익이 144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주력 자회사인 HL만도(지분율 30.26%)가 3분기 지배주주순손실 471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HL홀딩스의 연결 영업이익은 -26억원을 기록했다. 자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89억원(-13% (YoY), -18% (QoQ))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7%p (YoY) 하락한 2.7%였다. 특히 지분법손익 급감과 투자자산평가손실(-39억원)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는 모두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고, 배당 여력을 훼손하지도 않는다.

주차로봇 개발사 HL로보틱스 Update

연결 자회사인 HL로보틱스(보통주 기준 지분율 100%)는 2024년 9월 설립되었고, 같은 해 10월 프랑스 Stanley Robotics의 지분을 인수해 현재 72.78%를 보유 중이다. HL홀딩스는 지난 8월 14일 R&D/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50억원 유상증자(보통주 300만주, 주당 5,000원)에 참여했으며, 누적 출자액은 650억원이다. 2025년 매출액/순이익은 30억원/-183억원을 기록했고, 2026년 3분기 누적으로는 22억원/-214억원으로 매출액은 +10% (YoY) 성장했으나 순손실 폭이 확대됐다. 총자산 788억원, 부채 520억원, 자기자본 268억원이다. 부채비율은 194%로 전년말 대비 74.9%p 상승했다.

2026년 11월 2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채비 (0011T0)

IPO 주관사 업데이트: 급속충전 운영, 수익성 개선

Not Rated

현재주가(11.23) **3,22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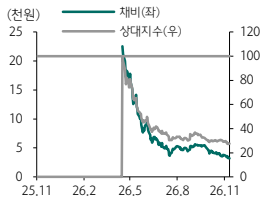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635.45
52주 최고/최저(원)	22,550/3,225
시가총액(십억원)	151.4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46,949.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6.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8
외국인지분율(%)	1.59
주요주주 지분율(%)	
정민교 외 10 인	38.91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 모빌리티	21.2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54	70	85	102
영업이익	(14)	(26)	(28)	(30)
세전이익	(14)	(62)	(54)	(34)
순이익	(14)	(62)	(54)	(34)
EPS	N/A	N/A	(2,459)	(899)
증감율	N/A	N/A	N/A	적지
PER	N/A	N/A	N/A	N/A
PBR	N/A	N/A	N/A	N/A
EV/EBITDA	N/A	N/A	N/A	N/A
ROE	N/A	N/A	(56.3)	(49.2)
BPS	N/A	N/A	2,594	1,822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국내 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는 2016년 설립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으로, 급속충전기 제조와 충전소 운영(CPO)을 함께 영위한다. 7kW 완속부터 400kW 초급속까지 충전기 라인업을 갖췄고, 직접 운영하는 급속충전면은 6,100여 면으로 급속 중심 민간 CPO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전국 급속 충전망을 구축했으며, 1,200kW급 초고출력 충전 국책과제도 주관하고 있다. 2026년 4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2025년 연결 매출은 1,017억원이며,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CPO 부문이 매출의 61%를 차지한다.

전기차 보급 가속, 급속 신규 구축은 둔화

국내 전기차 수요는 정책과 유가 요인이 겹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1~9월 전기차 내수 판매는 29만 9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7% 증가했다(산업통상부). 저공해차 보급 목표가 2030년 50%까지 상향되고 미달 시 제조·수입사에 기여금이 부과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유인이 커졌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800원대 중반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반면 급속충전기 신규 구축은 2023년 1만 3천여 기에서 2025년 8천여 기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도 3천여 기에 그쳤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증가 속도를 급속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기존 급속 인프라의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지 중심의 운영망, 품질 기반 수주 이어져

동사에 따르면 운영 중인 급속 충전소의 약 70%가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등 공공부지에 위치한다. 공공부지는 접근성이 높아 가동률 측면에서 유리하고, 공시지가 기반의 임차료로 장기 계약이 가능한 입지로 평가된다. 민간부지에서는 충전소에 카페·세차장을 결합한 '채비 스테이'로 도심 우량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24곳에서 급속충전기 117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7곳 138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 부문에서는 6월 한국환경공단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103억원 규모의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2025년 매출의 10%에 해당한다. 운영과 제조 부문에서 쌓은 품질 이력으로, 신규 부지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총이익 흑자 전환, 가동률 기반의 손익 개선

2026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721억원(+29.5% YoY), 영업손실은 286억원(적자 축소)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채권 관련 대손상각비 72억원(전년 동기 16억원)이 반영됐음에도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292억원)를 밑돌았고, 매출총이익은 2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CPO 부문은 매출 442억원(+18.5% YoY), 영업손실 114억원(적자 축소)으로 집계됐다. 동사에 따르면 부문 EBITDA 마진은 -3.1%로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급속 CPO 특성상 가동률 상승은 손익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4분기 CPO 부문 EBITDA 흑자 전환 목표의 달성 여부가 손익 개선 속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년 11월 24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12월 투자 전략

SKT 시장대비 성과 우수할 것, 연말 보유 추천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1월 23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64,6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43,9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4,720원

12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2027년 이슈 감안한 매수 전략 권고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12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연말로 진입함에 따라 2027년 실적 및 금리 전망에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인데 2027년 실적 전망 낙관적이며 시중금리도 연초 이후 점진적 하락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7년 이후 매출/이익/배당 성장 기대감이 높게 작동할 것이라 의외로 높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월 통신주 시장대비 성과 좋을 듯, 배당/매출 성장 기대감 동시에 작동할 것

2026년 12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코스피가 낙폭 과대를 근간으로 반등에 성공한다면 피지컬 AI 성공 기대감이 SKT를 위주로 통신주 상승을 이끌 것이며 코스피가 약세를 지속한다면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강한 주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12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1) 과기부 망 투자 촉진 방안 발표 시 주파수 경매 로드맵 포함 여부, 2) 11월 금통위 기준 금리 추가 인상 후 금리 동향, 3) 2027년 통신 3사 실적 전망, 4) AI 국책 사업자 선정 등이다. 이슈가 많진 않지만 파급력이 큰 호재가 있다. 특히 연말 과기부 망 투자 촉진 방안 발표에서 2027년 주파수 경매 로드맵이 포함된다면 메가톤급 호재이다. 8년 만의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과거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면 대규모 신규 투자를 명분으로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통신사 매출 성장 기대감 팽창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아직은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은 편이라 높은 기대배당수익률을 기반으로 높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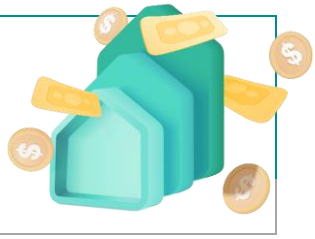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12월 종목별 투자매력도 SKT>LGU+>KT, 단기 급락한 SKT를 최선호

12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12월에도 SKT를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으로 선정한다. 투자가들의 시각이 2027년으로 넘어갈 것인데 비과세 배당 시행과 더불어 매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엔트로픽 보유 가치 상승,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 AI 기지국 투자 본격화 등 호재가 많은데다가 최근 AI 관련주 폭락에 따른 동반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아져 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트럼프 발언에 의한 하락은 매수 기회



건설 Weekly | 2026.11.24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2.3%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을 매수, 삼성E&A와 현대건설을 매도했다. 외인은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AI와 관련한 종목(원전, 반도체)은 더 크게 하락했다. 특히 삼성E&A는 최근 좋았던 주가 흐름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외인과 기관 모두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4으로 5주 연속 하락(-0.10p)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4주 연속 상승(+0.06%), 전세가는 75주 연속 상승했다(+0.08%). 수도권 매매가는 90주 연속 상승(+0.12%), 전세가는 91주 연속 상승했다(+0.14%). 서울 매매가는 93주 연속 상승(+0.03%), 전세가는 92주 연속 상승(+0.14%)했다. 매매가는 지방광역시는 하락(-0.01%), 기타지방은 보합을 기록,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68주 연속, 기타지방 64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5%,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 전남광주, 인천 보합, 대전(+0.02%) 상승, 대구, 부산이 하락했다(각각 -0.01%, -0.02%).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빅테크가 타국가에 AI 데이터센터 지을 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주가 하락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언급된 내용은 건설에 대한 부분으로, 임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데이터센터는 국내 기업들이 짓고, 빅테크가 임차하는 구조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만약 임차에 대한 과세로 언급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임차 수요에 영향을 줄 순 없다. 한국에서의 빅테크향 AI데이터센터는 추론형이며, 레이턴시와 데이터주권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임차 수요는 존재한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레이턴시와 데이터 주권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번 발언은 참모진과의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난관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빅테크가 미국에서 타국가로 데이터센터 수요를 이전하려는 것을 경계한 사례로 보인다. 오히려 타국가로의 건설 및 임차 논의가 활발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GS건설을 비롯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밸류체인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보며, 빠른 반등을 엿볼 수 있는 매수 시점으로 판단한다. GS의 동해 데이터센터 100MW는 20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이번 달 말 중으로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등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 연내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최초의 부과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에 대해 연말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준공된 반포현대에 대해 12월 30일까지 179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자료 검토 등 이후 확정된다. 재초환 대상 단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초과이익이 1인당 8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 된다. 초과이익은 조합설립 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준공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공사비 등의 개발 비용을 제외한 차액으로 계산된다.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오래된 경우, 개시지점 기준일을 준공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로 간주한다. 완공된 재건축 단지가 10년 내에 주변 시세보다 더 크게 올랐다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재초환 부담금의 확정은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단지들에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12월 공공주택 발주 쏠림 현상에 따라 중소형주인 계룡건설을 추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를 바라볼 때, GS건설을 동해 데이터센터 수주 기대감으로서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삼성E&A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글로비스 (086280.KS)	11/23	204,500	190,200	-6.99%	• 중국발 고운임 비계열 물량 확대와 유류할증료 반영으로 3분기 해운 부문 수익성 개선 • 고마진 비계열·High&Heavy 화물 비중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카카오뱅크 (323410.KS)	11/23	21,650	20,750	-4.16%	• 비대면 분양잔금대출 확대에 따른 4Q 대출성장률 회복과 NIM 방어로 이자이익 증가 기대 •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확대 등 플랫폼 수익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한미약품 (128940.KS)	11/23	449,500	436,000	-3.00%	• 로수젯 등 주력 제품 성장과 북경한미·한미정밀화학 실적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기대 •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와 차세대 비만치료제 임상 진전이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
CJ제일제당 (097950.KS)	11/23	182,200	176,000	-3.40%	• 해외 만두·햇반 중심의 글로벌 전략제품(GSP) 판매 확대에 따른 식품사업 성장 기대 • ADM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라이신 판매량 및 판가 상승, 원가 경쟁력 강화 전망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020150.KS)	11/23	37,800	36,100	-4.50%	• 북미 ESS 시장 확대와 비중국산 소재 수요 증가에 따른 전지박 출하량 확대 기대 •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회로박(HVLP) 공급 부족에 따른 판매량 증가 전망
호텔신라 (008770.KS)	11/23	37,800	36,800	-2.65%	• 면세점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저조하던 주가가 한한령 해제 수혜로 회복 전망 • 최대 규모의 시내 면세점 보유. 중국인 인바운드 증가 수혜 가능성 부각
해성디에스 (195870.KS)	11/23	39,200	38,050	-2.93%	• DDR5 패키지기판 출하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 DDR6 등 차세대 메모리용 기판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전망
진에어 (272450.KS)	11/23	8,000	7,360	-8.00%	• 일본·중국 노선 중심의 여객 수요 증가와 신규 노선 확대에 따른 탑승률 개선 기대 • 2027년 3월 에어부산·에어서울과의 통합 LCC 출범에 따른 노선 효율화 기대
디케이티 (290550.KQ)	11/23	29,450	32,200	9.34%	• LFP 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른 BMS 공급 증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 BMS·센서·컨트롤러 기판 공급 확대에 따른 신규 성장동력 확보 전망
LIG아큐버 (073490.KQ)	11/23	32,750	32,600	-0.46%	• 일본 및 국내 스몰셀 공급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 및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 5G SA 투자 확대에 따른 시험장비 및 스몰셀 수요 증가로 이익 성장 본격화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68%	+0.64%p	+61.96%	+35.3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글로비스 (086280.KS)	11/23	204,500	190,200	-6.99%	• 중국발 고운임 비계열 물량 확대와 유류할증료 반영으로 3분기 해운 부문 수익성 개선 • 고마진 비계열·High&Heavy 화물 비중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현대백화점 (069960.KS)	11/23	98,300	89,700	-8.75%	• 면세점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4분기 영업이익 증가 기대 • 지누스 구조조정 마무리 및 고정비 절감에 따른 전 사업부 흑자전환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77,500	-13.83%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18,940	1.28%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SK가스 (018670.KS)	11/9	234,000	209,500	-10.47%	• 동절기 아시아·유럽 LNG 가격 상승에 따른 LNG-LPG 스프레드 확대 수혜 기대 • 파생상품 평가이익 및 트레이딩 수익 확대에 힘입어 연간 순이익 사상 최대치 달성 기대
코스맥스 (192820.KS)	11/2	247,000	285,000	15.38%	•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로 3분기 호실적 전망 • 미국 법인 흑자전환과 동남아 사업 턴어라운드, 중국 매출 회복으로 ODM 경쟁력 강화
계룡건설 (013580.KS)	11/2	22,250	24,450	9.89%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SK바이오팜 (326030.KS)	10/26	76,900	81,100	5.46%	• 엑스코프리 판매국 확대에 따른 로열티·원료의약품 매출 성장 기대 • 오파칼림 임상 재개 시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10/19	1,229,000	1,192,000	-3.01%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한미약품 (128940.KS)	10/19	397,500	436,000	9.69%	• 로수젯 등 주력 제품 성장과 북경한미·한미정밀화학 실적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기대 •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와 차세대 비만치료제 임상 진전이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4.77%	+10.49%p	+15.21%	-11.4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AI에이전트액티브 (0241D0)	2026.11.23	7,155	7,155	신규편입	• 미국에 상장된 AI 에이전트 생태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시장 변화에 따라 종목과 편입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구조 • 생성형 AI 산업의 성장 동력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서비스 도입과 수익화로 확장됨에 따라 따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 강화 기대
ACE 미국 WideMoat 동일가중 (309230)	2026.11.23	30,070	30,070	신규편입	• 미국 상장 기업 중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보유하면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 동일가중 방식을 활용해 특정 대형주에 대한 쏠림을 완화했으며, 포트폴리오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기마다 교대로 종목을 교체하는 구조로 종목별 매수 시점을 분산한 것이 특징
SOL 미국 AI소프트웨어 (481180)	2026.11.23	13,385	13,385	신규편입	• 미국 상장 기업 중 AI 소프트웨어 관련 키워드 유사도가 높은 15개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유동시가총액과 키워드 유사도 점수를 반영해 편입 비중을 산정 •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SAP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뿐 아니라 팔로알토 네트웍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 사이버보안 기업까지 편입
KODEX 미국 AI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2,355	-23.8%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TIGER 미국 캐시카우100 (465670)	2026.11.23	16,070	16,070	신규편입	•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금융업종과 잉여현금흐름이 음수인 기업을 제외하고, FCF 수익률이 높은 100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지출 부담과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수한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재무건전성과 주주환원 여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투자 매력 부각 기대
TIME 글로벌 소비트렌드액티브 (494180)	2026.11.23	11,960	11,960	신규편입	• 글로벌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중 성장성과 경쟁력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ETF.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필수소비재와 경기소비재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구조 • 소비심리 악화에도 실제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 양극화와 가치소비 확산에 대응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
PLUS 태양광&ESS (457990)	2026.11.23	23,205	23,205	신규편입	• 국내 태양광 및 ESS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태양광 발전 설비부터 전력기기, ESS 배터리까지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밸류체인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 •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
KODEX 200 커버드콜액티브 (0219E0)	2026.11.23	5,465	5,465	신규편입	• KOSPI200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편입 및 옵션 매도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주가 상승 참여와 월 분배금 확보를 동시에 추구 •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한 추가 수익 확보 기대. 국내 주식 매매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서 액티브 운용을 통해 시장 상승에도 유연하게 대응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77.51	3.0%	• 수익성,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MAGS (미국 매그니피센트7)	2026.11.23	61.66	61.66	신규편입	•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Magnificent 7 기업에 동일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ETF.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유사 비중 편입 • 기존 사업의 현금창출력으로 AI 설비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들로, 이익 추정치 상향과 장기금리 안정이 확인될 때 빅테크 비중 확대 수단으로 활용 가능
IGV (북미 소프트웨어)	2026.11.23	91.66	91.66	신규편입	• 북미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섹터 ETF.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사이버보안 기업까지 편입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투자 • 토큰 가격 하락으로 AI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가운데, AI 기능의 상용화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는 기업에 주목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1.43	-1.8%	•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 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RTH (미국 대형 소매유통)	2026.11.23	275.30	275.30	신규편입	• 매출의 50% 이상이 유통에서 발생하는 미국 상장 대형 유통기업 25개 안팎에 투자하며 Amazon, Walmart, Costco 등 온라인·할인점 대표 기업이 중심 • 소비심리 둔화에도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실적 방어력 부각 기대
PEJ (미국 레저·엔터)	2026.11.23	64.46	64.46	신규편입	• 미국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30개를 주가, 이익 모멘텀, 퀄리티, 밸류에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하는 ETF. 여행, 숙박, 외식,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소비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 • 미국 가계의 소비 양극화 속에서도 여행·레저 등 경험 중심의 소비 수요에 주목. 유가 안정에 따른 운송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소비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
VOO (S&P500)	2026.11.23	635.54	635.54	신규편입	•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대형주 ETF. 미국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약 500개 기업을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며 연 0.03%의 낮은 운용보수가 특징 • 특정 산업과 테마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면서 미국 기업 전반의 이익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주도 업종의 순환매와 실적 개선세 확산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분산투자 효과 부각 기대
DIVO (미국 대형 배당성장주)	2026.11.23	43.98	43.98	신규편입	• 퀄리티 대형 고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 주식 배당과 더불어 개별 종목의 콜옵션을 활용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월 분배금 확보 • 시장 및 개별종목의 변동성을 고려한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증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 수익률 변동성 완화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 독일 11월 제조업 PMI (E 54.2, 이전치 54.2) ▪ 독일 11월 서비스업 PMI (E 52.3, 이전치 52.5) ▪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 (E 52.7, 이전치 52.7) ▪ 유로존 11월 서비스업 PMI (E 51.9, 이전치 51.4) ▪ 미국 11월 제조업 PMI (E 54.5, 이전치 54.9) ▪ 미국 11월 서비스업 PMI (E 55.5, 이전치 56.1)	▪ 일본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3) ▪ 일본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 독일 11월 IFO 예상 (E 92.0, 이전치 91.6) ▪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0.2%, 이전치 0.3%)	▪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92.2, 이전치 91.7) ▪ 미국 10월 개인소득 (E 0.4%, 이전치 0.2%) ▪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0.6%, 이전치 1.9%)	▪ 한국 11월 기준금리 (E 3.25%, 이전치 3.0%) ▪ 독일 12월 Gfk 소비자기대지수 (E -29.9, 이전치 -30.8)	▪ 중국 11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4.4%) ▪ 미국 10월 도매 재고 (E 0.4%, 이전치 0.7%)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 한국 10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1.2%) ▪ 일본 10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2.3%) ▪ 일본 10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1.7%) ▪ 중국 11월 제조업 PMI (E 49.0, 이전치 49.3) ▪ 중국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7) ▪ 독일 11월 CPI (E --, 이전치 2.8%)	▪ 일본 10월 실업률 (E --, 이전치 2.4%) ▪ 일본 10월 유효구인배율 (E --, 이전치 1.19) ▪ 한국 11월 수출 (E --, 이전치 93.9%) ▪ 한국 11월 수입 (E --, 이전치 36.0%) ▪ 한국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3) ▪ 유로존 11월 CPI (E --, 이전치 4.0%)	▪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E 55.0, 이전치 55.5) ▪ 미국 11월 ISM 구매물가지수 (E --, 이전치 75.2) ▪ 한국 11월 CPI (E --, 이전치 2.8%) ▪ 유로존 10월 실업률 (E --, 이전치 6.5%) ▪ 미국 10월 실업률 (E --, 이전치 6.5%)	▪ 중국 11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 (E --, 이전치 50.8) ▪ 유로존 10월 PPI (E --, 이전치 11.1%)	▪ 미국 11월 ISM 서비스지수 (E 54.9, 이전치 54.5) ▪ 미국 11월 NFP (E 90k, 이전치 165k) ▪ 미국 11월 실업률 (E 4.1%,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